World p/4
출전 유물로 월급주는 IS
metro
Sports p/20
한국골퍼 LPGA 5연속 우승
7억 쏠께 같이 갑시다
맥도날드 오늘 전국서 '에그맥머핀' 36만개 공짜 제공
다국적기업 알게모르게 왕따 한국사회 적응 안간힘
류현진 라이브 피칭 굿… 13일 등판 기대
복마전 통영함
장군님도 썩었나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11층에서 추락해 죽은 호랑이

metro HongKong

인민대표 불법 사육 드러나

불법 사육하던 호랑이가 11층에서 추락해 죽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산둥성 린우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리모씨 부부는 바닥에 게져진 누워있는 동물을 발견했다. 하지만 크기가 개보다 훨씬 컸고 검정색과 노란색의 털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죽어있는 호랑이였다.

▲山東年輕一青小虎墜樓死亡。

非法養虎人大辭職

경찰 조사결과 호랑이의 주인은 칭다오시 인민대표 양원정으로 밝혀졌다. 그는 소유한 건물 옥상을 개조해 호랑이를 몰래 길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죽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철조망을 부수고 달아나다 11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부연구원인 제엔은 "호랑이는 국가급보호동물로 개인이 사육할 수 없다. 보호동물을 죽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양원정은 현재 칭다오시 인민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정리=이국명기자

자원외교 현장조사 '졸속' 우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두팀으로 나누어 8일부터 16일까지 '졸속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투자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각 팀당 배정된 경비가 1억원이 넘는 이번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해외 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팀은 중동을 찾아 쿠르드 광구개발사업, 이라크 유전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인력 운용 현황이나 사업 공정률 등을 점검한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로 이동,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품 판매 현황이나 운영비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다른 팀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장과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특히 하베스트 사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무 및 경영 현황, 투자 내역, 인수전후 운영실적 등을 살피는 동시에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 매각 때 의사결정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기관 업무보고와 현장 답사를 제외하면 현지 노동자나 주민과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사가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도 "사업이 손실을 본 것은 투자 당시의 잘못된 결정, 유가변동, 시장상황이 악화 등이 주된 이유"라며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윤우기자 yoon@

Ambassador Mark Lippert is a father like us.

어떤 이유로도 … 정당화될 수 없습 …
마크 리퍼트 주 … 쾌유를 빕니다

리퍼트 대사도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김영란법 보완 요구 '검찰 조직 리모델링' 목소리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이 나서기는 했지만 실상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변협은 한국기자협회와 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들을 대리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도 다온다.

언론이나 사립학교와는 달리 정작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사건으로 김영란법의 단초를 제공한 법조계는 아직까지도 잠잠한 분위기다. 서울서초동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날 사석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힘 있는 검사가 아직 느긋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분위기라면 벤츠를 선물하는 변호사와 차를 선물 받는 검사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독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더해 직접적인 수사권도 가진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검찰의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발적으로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1 공수처 설치 필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전부터 논의돼 온 방안이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를 대신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논의과정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의 공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갖가지 제한장치로 인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공수처 신설로 해결하면 된다"며 "언론은 김영란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 검찰 수사권 폐지

반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을 경우 공수처 소속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느냐"며 "결국 빙빙 돌게 된다. (수사기관을) 여러 더 만들더라도 배제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특별한 신분도 아닌데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직접 수사 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따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비리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 검·경 수장 직선제 도입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뽑자는 제안이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이 같은 주장은 김영란법 통과 직후에 다시 나왔다. 지난 4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검·경 직선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검찰의 반발을 넘어서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금 변호사는 보다 개혁 강도가 낮은 자신의 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손병철기자 bbson@metroseoul.co.kr

방산비리 수사 100일… '결가지 수사' 비판

정관계 로비 의혹 아직 못밝혀… 군피아 등 비리구조 척결해야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이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00일 동안 23명을 기소한 것을 놓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이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총 23명(구속 16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대상은 34명이다. 6건의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1981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변의 평가는 싸늘하다. 특히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 3일 "합수단은 검사 16명을 포함,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되도록 성과는 미진하다"며 "합수단의 수사가 방산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납품 비리'라는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4개팀을 가동하고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각 팀에는 군 검찰관,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배치돼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합수단과 별도로 정부합동감사단에 검사를 파견,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사각지대가 많은 군 특성상 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산비리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 또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각에서 합수단이 이명박정부 당시 무연탄 기도입사업권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이 이에 대해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내사가 진행됐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합수단은 그 동안 손대지 못했던 군 내부의 구조적,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합수단이 입찰이나 계약같은 절차상의 문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질적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요구다. 합수부 출범 때부터 김진태 검찰총장이 강조했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각종 방산비리 사건에 로비 의혹을 한계없이 수사해야만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두 사람은 최근 통영함 소해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와 있다.

안 관유착형 '군피아' 병폐 역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피아'란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기밀을 유출하거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는 커넥션 비리를 의미한다.

1993년 김영삼정부는 율곡사업 비리 감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율곡사업 비리는 노태우정부의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군 수뇌부인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도 법정에 세울 만큼 전방위적이고 깊이 있는 수사로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방산비리 수사는 군 내부의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밝히기위해 육·해·공군 등 전군에 걸쳐 무기 도입·군수품 조달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 분야 비리, 군사기밀 유출 등을 파헤친다는 합수단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돼야 합수단의 출범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정윤아기자 yoona@metroseoul.co.kr

방산비리 뿌리뽑을 수 있을까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황기철(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의 이임식 모습. 현재 방산비리 합수부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월 한국 배치 미 기갑2여단 탱크 화력 위용 오는 6월 한국에 배치되는 미 본토 제1기갑사단 2기갑전투여단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포트 어윈의 미군 종합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다. M1A2 에이브럼스 탱크에서 포가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중동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타밈 국왕과 회담하기는 양국 수교 40주년이던 지난해 11월 타밈 국왕이 국빈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후 4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에너지·건설 분야의 전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투자·보건 의료·원자력·ICT·교육·문화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해 양국 간 동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또 카타르가 오는 202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중동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정윤아기자

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을 두고 삼권분립 논란이 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 방침이 확고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해당 의원들의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현재 논란은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겸직논란 문제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게 의장실 측 전언이다.

실제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과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 규정상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정 의장의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겸직논란은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충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현재 주 의원 등은 정무특보 지명 이후 9일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지 않아 아직 공식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이들을 공식임명하게 되면 겸직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병형기자

이민여성 저체중아 출산율 한국 여성보다 1.3배 높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의 저체중아 출산율이 한국인 부부에 비해 약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은 한국인 부부 38만8447쌍과 엄마가 외국인인 3만6024쌍의 저체중아 출산율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결혼이민 여성은 언어표출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문화 부적응, 가사 부담과 자녀양육,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

특히 임신 중에는 출신 국가의 음식을 접하기 어려워 영양섭취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취약지역에 사는 결혼이민 여성의 비율이 10.6%로 전국 평균 4.0%보다 2.6배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결혼이민 여성은 임신 전과 후에 충분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부인과에 도착하더라도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금준 교수는 "우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시 거점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1.3 times higher possi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carrying a low birth weight infant than Korean women.

It ...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have 1.3 times higher possibility of carrying a low birth weight infant than Korean women.

According to the research done by Jo Guem Jun professor's team of obstetrics in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There were 388,447 Korean mothers carrying a low birth weight infants while foreign mothers showed a lot less, which is 36,024.

Research has shown that females among married immigrants were going through dramatic stress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y, pressure of housework, trouble raising children and difficulty with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women had difficulty taking in sufficient amount of nutrition during pregnancy period because they couldn't eat food from their home country.

Especially, 10.6% were immigrant women in undeveloped regions, which is 26% higher than other places throughout the country.

For this reason, pregnant women were not provided sufficient amount of nutrition during and after their pregnancy period. Also, another problem was that they couldn't get the proper treatment even at the hospital because of their incap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Professor Jo Guem Jun stated that the most urgent task to be done is to come up with quick transportation method to the nearest hospital in case of an emergency and enforce the supporting business of those women in undeveloped areas.

/번역 China Kim (김중현) 기자

유물로 월급주는 IS

문화 유산 파괴 국제적 논란 … 유물 암거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잇따른 고대 유적 파괴로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IS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 문화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포함한다. IS의 유물 파괴 이유에 대해 미신 배척과 존재감 과시를 들 수 있지만, 유물 밀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우세하다.

가장 최근에 IS 공격을 받은 유적지 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라크 파르티아 시대의 대표적 도시 유적이다. 하지만 중장비 차량까지 동원된 IS의 무자비한 유물 파괴 행위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IS는 지난달 이라크 모술 박물관의 석상과 조각품도 파괴했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모술 박물관의 유물 90여 점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전했다. 인근 모술 도서관에서는 IS가 설치한 폭발물로 고대 시리아어 서적과 오스만 제국 시대의 서적 등 수천 점의 희귀 문서와 고서적이 불에 타 사라졌다.

◆ 빼돌린 유물로 IS 자금 마련

IS는 조각상과 성지 등이 알라 신보다 숭배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고대 유물을 없애고 있다. IS는 드릴이나 망치로 유물을 파괴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자신들의 과시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IS가 훔친 유물들을 암시장에 내놓으며 조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 유적 파괴 현장에서는 IS가 트럭으로 유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 현지 주민과 유엔 관계자들에게 목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고고학 연구자인 주나이드 아메르 하비브는 AP 인터뷰에서 "IS가 약탈한 유물들은 IS 부족 현금을 충당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유물을 내다 판 돈으로 대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월급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IS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모술 박물관 유물 파괴 현장의 모습. IS 대원들이 고대 아시리아 조각물을 둔기로 파괴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교자하는 흑백 전·현직 대통령 미국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illegible]' 50주년 기념 행사가 7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주에서 열렸다. 사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AP 연합뉴스

르몽드 '동해/일본해' 나란히 병기

최신판 세계 대지도 동해 첫 기재 … 그동안 일본해만 표기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발행한 세계 대지도에 최신판이 동해와 일본해 명칭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매체는 일본해만 표시해왔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출판계에 따르면 르몽드사 출판부가 펴낸 2015년판 세계 대지도책에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MER DU JAPON/MER DE L'EST'(일본해/동해)로 적고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해를 동해보다 먼저 표기했지만 르몽드사가 발간한 세계 대지도책에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르몽드사는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해왔다. 이 지도책은 프랑스 아틀라스 출판사와 이탈리아 아고스티니 지도 제작사가 2012년 발간한 대형 세계 지도책에 사용된 것들을 가져온 것이다. 아고스티니는 두 개의 명칭이 사용되는 전 세계 바다와 섬 등의 지명은 복수의 이름을 대등하게 병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르몽드사 세계 대지도책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 르몽드 세계 지도책에서 독도는 'Dokdo/Takeshima (독도/다케시마)', 대한해협은 'Daehan Haehyeop/Tsushima Kaikyo (대한해협/쓰시마해협)'으로 각각 표기됐다.

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명예교수는 "르몽드사가 발행한 세계 지도책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것은 프랑스는 물론 불어권에서 두 개 명칭을 대등하게 적는 관행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종룡 인사청문회 통과 '무게'

내일 후보 검증의 장 열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사전 질의 과정에서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임 후보자가 지난 32년간 공직에 재직하며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현재로선 청문회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금융개혁안에 집중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오는 10일 인사 청문회를 갖는다. 이날 임 후보자는 서민금융 등 가계부채와 금융 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과 부채감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가계부채 등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특히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와 2번에 걸친 금리 인하에 대해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리 인하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민금융과 금융 거래에 대한 소신 역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간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이 부진했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 등 금융 취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면서도 "확고한 보안 없는 핀테크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환·하나은행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신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의혹 검증

임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중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앞서 가족과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에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운계약으로 임 후보자는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선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 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면서 "여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태린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2012.94 (+14.58)	635.84 (+4.41)

금리	환율
1.94 (-0.04)	1098.80 (-1.60)

우리은행 공채 54대1

우리은행은 8일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8000여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은 영업점에서 우리창구(빠른창구) 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군이며, 개인고객 대상으로 예금 신규와 제신고, 상담, 청구서와 업무를 한다.

이번 공채는 이광구 은행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스펙보다는 바른 인성과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채용'을 주문함에 따라 채용시 학력과 전공,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신상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신입행원 공채는 원서접수 결과, 150명 채용계획에 전국 8000여명이 몰려 약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개인금융서비스직군 공채시 평균 40대 1의 수준에서 이번에 54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CEO의 인사원칙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We크루팅' 제도도 한 몫했다"고 평가했다.

We크루팅은 전국을 순회하며 예비지원자에게 은행의 인재상과 전형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하는 새로운 채용방식이다.

서울과 용인, 대전,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열린 'We크루팅 day'에는 1000여명의 예비지원자들이 몰려 취업특강과 현장면접을 봤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전순이 주부 경제학

주방 위생 절반은 행주 관리에 달려

식탁, 냉장고, 조리대까지 주방에서 늘 사용하는 행주.

젖은 행주를 그냥 내버려두면 6시간 뒤에는 식중독균이 증식을 시작해 12시간 뒤에는 그 균이 100만 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행주는 제대로 건조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삶아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매일 행주를 삶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보자. 젖은 행주에 약간의 세제를 넣어 살짝 주어준 뒤 비닐백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가열하고, 물에 헹궈 건조시키면 된다. 일회용 행주 타올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행주도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면 좋다.

조리에 사용하는 행주는 두께가 얇아야 하며, 크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비해 두면 좋다.

싱크대용 행주는 더러움이 쉽게 빠지는 타월 또는 거즈를 겹친 제품이 좋다. 레이온 부직포 또한 뺄 때 더러움이 쉽게 지워지고, 건조가 빠르므로 싱크대용으로 적절하다. /김민지기자 mrw@

"월세·반전세 구해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 사이에서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상가에서 시민이 부동산 전단을 보고 있다. /뉴시스

왕십리3구역 '센트라스' 브랜드, 왜?

1·2구역 '텐즈힐'과 차별화 시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한 '센트라스'로 이름을 확정하고 이달 분양에 들어간다. 왕십리뉴타운1구역과 2구역이 같은 단지명을 사용한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왕십리뉴타운3구역 단지명을 공모한 결과 '센트라스(CENTLAS)'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앞서 공급된 1·2구역은 '텐즈힐'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 바 있다.

3구역이 1·2구역과 다른 단지명을 선택한 데는 왕십리뉴타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왕십리뉴타운은 사업면적만 33만7000㎡로 5000여 가구, 1만4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이 중 입주를 앞둔 1구역은 1702가구, 입주에 들어간 2구역은 1136가구로 이뤄져 있다. 청계천변을 따라 조성됐지만 지하철역까지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이에 반해 마지막으로 분양에 돌입하는 3구역은 2789가구로 단지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 또 2·6호선 신당역과 2·5호선·중앙선·분당선 왕십리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구역은 아파트만 지어지는 게 아닌, 업무와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형 주거단지를 목표로 하는 왕십리뉴타운의 개발 콘셉트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이에 조합 측은 1·2구역과 같은 '텐즈힐'이 아닌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지상낙원 '아틀란티스(Atlantis)'를 합쳐 만든 '센트라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했다. 이름 안에 왕십리뉴타운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편의시설,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담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의 이미지나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3구역은 1·2구역보다 입지나 단지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름을 써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옥기자 ssun0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금로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서준
광고문의	02)721-9831~3
독자센터	02)721-9801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지원 효과 '글쎄'

사업자 반응 '시큰둥'—"임대료 상승 5% 제한 변수"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실패한 제도라 평가받는 정부의 준공공임대주택에 서울시가 힘을 걷어 붙인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식의 방법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2013년 말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도 도입 후 실효성 논란에 부딪치며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급자 혜택을 늘렸다. 같은 시기 서울시에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임대사업자에게 금리 2%대로 호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은 관계 당국에서 등록자 수를 밝히는 것도 꺼릴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400여가구가 등록됐고 그 중 매입형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주택은 1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만 보면 이 보다 더 적을 것이란 게 예측 가능하다.

각종 세금 혜택에도 공급자가 나서지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무임대 기간 8년과 5% 내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이던 의무임대 기간이 2년 줄었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맞춰야하는 최초 임대료 제한 규제도 없앴다.

서울 구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황모씨(49)는 "사실 준공공임대사업에 관심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자신의 소득이 밝혀지는 것이 싫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임대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나서지 않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임대사업자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 2% 대 금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준다는 서울시의 제안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조금 더 높지만 각종 대출을 받아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란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대위 방식으로 시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받아 사업자에게 원금을 대출해 주고 사후 관리는 은행이 맡아 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금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자보전방식은 사업자가 4.5%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2.5% 금리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 단계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문의가 많아 목표 수량이 넘칠까 걱정"이라고 낙관했다. 서울시는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200호를 목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사업 하려는 일반 사람들에겐 별로 관심없는 사업이다"며 "일반 임대 의무기간 5년에 비하면 상당히 긴 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보고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응력인데 준공공임대주택은 이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8년이면 전세 갱신 4번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은데 임대료 상승 5% 제한이 준공공임대주택 성패를 가를 주요한 변수"라고 답했다.

결국 서울시의 방안이 누구를 위한 지원책인지 불분명하다는 시장의 얘기다. 오히려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거나 오히려 조금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시에서는 임대료가 높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주거비 증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시의 약속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조 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시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엄 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은 서울시가 건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에는 사실 관심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인 개정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일부 효과에 숟가락만 얹기보다는 실질적인 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철기자 kimc0504@metroseoul.co.kr

특별계획구역, 분양시장 '흥행보증수표'

최근 특별계획구역에서 분양되는 부동산이 인기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단기간 내 계약을 마감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광교신도시 호수공원특별계획구역 내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 평균 422.3대 1을 기록하며 2일 만에 완판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도 4일 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도하부대 특별계획구역에 공급된 롯데캐슬골드파크 1·2차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복합적·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만큼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서울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특별계획구역 개발에 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9월부터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병전략 수립 용역 입찰을 실시, 회의·호텔·관광·컨벤션·전시회 등의 시설을 갖춘 마이스(MICE) 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스 시설 조성이 최종 결정되면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사이 특별계획구역 8만2724㎡ 부지에 '마곡판 코엑스'가 들어서게 된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근 수혜 분양 단지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익건설이 3월 마곡지구 D7-1·2블록에 공급하는 상업시설 '동익 드 미라벨'은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과 바로 마주한 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마곡역(2017년 개통예정)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중흥건설이 광교신도시 C2 블록에서 상반기 선보일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맞은편으로도 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 당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계획2구역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라 주상복합 부지가 제외됐다.

반도건설이 이달 동탄2신도시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6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총 7개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위치해 있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위례신도시의 '트랜짓몰' 처럼 대중교통과 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다. /박선옥기자 pms0823@

정라파크자이 더테라스 2만5000명 방문 지난 7일(토) GS건설 정라파크자이 더테라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GS건설 제공

신한금융투자, '신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12일 해외선물 투자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글로벌 매크로 시황'과 '상품별 특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기법'을 주제로 '신한 글로벌(Global)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신한금융투자 본사 9층 B교육장에서 열리며 12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는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주제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한원호 수석연구원이 강의를 한다. 2부는 해외선물거래중개회사인 RJO Brien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상품별 특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한금융투자 윤병민 글로벌사업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에너지 상품 등 폭넓은 해외선물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증권사를 통해 해외선물에 투자하는 고객들에 구체적인 거래기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 글로벌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의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유선(02-3772-4365), 이메일(global_so@shinhan.com) 또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유선 지기자 [illegible]

LH, 보유자산 총력판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0조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보유자산 총력판매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토지·주택 등 보유자산의 판매 목표를 당초 18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LH는 우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 채질을 개선해 올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토지리폼, 판매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LH는 지난해에도 판매목표관리제, 판매신호등 등 사내 판매경쟁체제를 도입해 창사 이후 최대인 27조2000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 금융부채를 7조2000억원 감축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융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자투표제·국민연금 의결권 주목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신세계 등 63개사가, 이달 중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738개사가 주총을 열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 등 7개 상장사는 지난 3일과 6일에 주총을 치렀다.

특히 20일에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LG 롯데쇼핑, 효성 등 229개사, 27일엔 엔씨소프트 등 293개사가 주총을 소집할 예정이다.

올해 주총 최대 관전포인트는 ▲전자투표제 시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다.

우선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기업들이 대거 늘어났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79개사가 참여했을 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181개사가 추가돼 총 260개사로 늘어났다. 올해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등이 새롭게 전자투표 도입 계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실시로 소액주주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킹 등 보안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참여과정 등이 복잡해 자칫 주주 참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올해 주총시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투자한 기업별 의안을 분석하는 외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주요 안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도 두 회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반대함으로써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기금 적립액이 325조원으로, 이 중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 투자액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시가총액 대비 7%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총시즌에 경영권의 향방이 걸려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당장 엔씨소프트, 일동제약 한국토지신탁 신일산업 등에서 경영권 분쟁의 결말이 이번 주총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김 대표(9.9%)보다 엔씨소프트 지분을 많이 보유한 넥슨(15%)은 지난달 지분보유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분명히 했고 이사선임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엔씨소프트에 전달한 상태다. 일동제약도 2대 주주인 녹십자가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녹십자가 제안한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건에 대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코스닥 흑자기업 3분의 2 실적 개선세 없어

최근 코스닥시장이 활기를 찾았지만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코스닥 시장의 제질 개선과 대형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중 흑자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0년 75.4%에 달했던 흑자기업 비중은 2011년 73.9%, 2012년 72.4%, 2013년 70.3%로 점차 줄어들더니 작년 상반기엔 68.2%로 감소했다.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헬스케어·소프트웨어·문화·콘텐츠 업종의 비중도 커졌다.

IT·하드웨어 관련 기업이 코스닥 시가총액의 50%가량(2004년 기준)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40%로 축소된 반면 헬스케어·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비중은 35%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면서 코스닥 활성화를 지속시키려면 개별 투자자들의 주의와 함께 상장과 관련한 질적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기자 lbr@...

한국투자증권

'쥬라기와 함께하는 eFriend Air 온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오늘 온라인 투자 설명회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증권방송 이프렌드 에어(eFriend Air)를 통해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쥬라기와 함께하는 eFriend Air 온라인 투자설명회'와 '쥬라기를 찾아라 출석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코스피·코스닥 시총 사상 최대치 경신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동시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25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2011년 5월 2일 기록한 1250조3000억원으로 약 3년 10개월여만에 경신됐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011년 9월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여파로 잠시 1000조원을 밑돌았지만 2012년 위기가 완화되며 1100조원 대에 올라섰다.

지난해 5월 미국 경제회복 등으로 1200조원대로 오른데 이어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로 인한 외국인 매수 행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시가총액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74%로 2011년 대비 약 10%p 감소했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같은 기간 각각 2.7%p와 1.8%p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여전히 세계 경기회복이 미진해 경기민감주가 부진했지만 중·소형주는 내수활성화 기대와 테마주 부각 등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도 연일 시가총액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169조9000억원으로 전날 세운 최고치(168조6000억원)를 넘었다.

코스닥지수가 6년9개월래 최고치를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기자

신흥국 성장 불구 국내 민영건강보험시장 해외성적 '미미'

민영보험시장 활성화 추세 지속… 국가별 맞춤전략 필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민영건강보험(PHI)시장이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기조 유지로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만큼 해당국가로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Swiss R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흥국의 민영건강보험 보험료는 지난 2013년 기준 3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를 신흥국의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11.2%로, 세계 성장률(3.5%)의 세 배에 달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아시아신흥국의 연평균 보험료 성장률은 19.0%였다.

스위스리는 이 같은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해 78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신흥국의 성장 동력으로는 ▲임금상승, 인구증가, 도시화, 기술발전, 고령화 등 거시환경 변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 ▲공공부문 재원이 한계로 민영건강보험 역할 강화 ▲민영보험사 보장 비중 저조로 성장여력 존재 등이 꼽혔다.

신흥국의 민영보험 성장세가 두드러진 만큼 국내 보험사의 해당 국가 진출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의 해외 실적은 저조하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869억9900만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했다. 한화생명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억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교보생명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이익이 17억8300만원에 불과했다.

14개 중 7개사가 해외에 나가있는 손해보험사도 지난해 385억원의 손실을 냈다. 손보사별로는 LIG손해보험이 711억원, 동부화재가 77억원의 손실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신흥국의 보험시장은 건강보험 외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아직 국내 보험사의 실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국가별 맞춤전략 수립이 좌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봉석기자 ...

삼성전자, 기술력 '강화 모드'

작년 실적 악화 속 R&D투자 역대 최대 … 현금성 자산 60조원 돌파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작년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며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개질 개선은 물론 글로벌 M&A(인수합병) 시장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등극했다. 작년 현금성 자산은 60조원을 넘어섰다. 실탄(현금)을 두둑하게 가진만큼 삼성전자는 연구개발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8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유동자산은 115조1460억원으로 전년대비 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장 조달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전년대비 13.4% 늘어난 61조8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현금성 자산이 60조원을 돌[illegible] (예금) 자산(16조8408억원)에 단기금융상품(41조6898억원)과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3조2868억원)을 모두 합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 비용(15조3255억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매출액 206조2059억8700만원의 7.4%에 달한다. 2013년 연구개발비 14조7804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3.7% 늘었지만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투자·재무활동을 통해 현금 유출을 줄인 덕분이다.

때문에 업계는 삼성전자가 당장 동원 가능한 60조원의 사용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illegible]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소규모 딜에서 벗어나 수조원대에 달하는 좀 더 과감한 대규모 M&A에도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IoT 시장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지만 최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선진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구글처럼 기술 기업을 사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작년 5월 이후 8개 해외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과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지난달 인수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업체 루프처럼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기자 …@metroseoul.co.kr

6일 제3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 에서 삼성전자 부스 앞을 많은 관람객들이 지나고 있다. /장…기자 …

엑스레이·초음파 전략 제품 '관심'

르포 KIMES 삼성 부스 가보니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를 찾았다. KIMES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부스는 단연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부스에는 1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새로운 병원설비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8일까지 열린 KIMES 2015에 참가해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등 신제품을 포함한 주요 영상진단기기 9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 전시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전략 제품을 내놔 고객을 공략했다.

전면에 내세운 제품은 2월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60A'였다. 삼성은 이 제품을 부스 입구에 마련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러 엑스레이 제품이 같은 디텍터를 공유하는 'S Share' 등 특화된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제품 뒤쪽으로는 보다 개선된 화질을 제공하는 'S-Vue' 기술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시연을 참관한 한 병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엑스레이 제품은 큰 소음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점과 다양한 제품이 같은 디텍터를 공유한다는 점이 인상깊다"며 "아직 경쟁사와의 차별점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력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삼성은 2011년 4월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2013년 1월에는 이동형 CT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 모델보다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는 초음파 기기 'RS80A with Prestige'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찾기 위해 초음파 영상에 CT와 MRI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는 'S-Fusion', 체내 조직의 경화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S-Shearwave', 표현력을 강조해 더 사실감 있는 3D·4D 영상을 제공하는 'Natural Vue' 등 다양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품 설명을 담당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전 모델의 경우 판매량이 500대에 달하는 등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개선된 제품은 더 큰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중·대형 병원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WS80A with Elite', 현장진단용 태블릿형 'PT60A', 휴대형 'HM70A' 등 다양한 초음파 진단기기와 함께 이동형 CT 'BodyTom'도 함께 전시했다.

삼성은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지목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KIMES2015는 이 과정을 중간에서 진단할 수 있는 전시였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장…기자 …@

삼성 임직원 봄맞이 자원봉사 활동 삼성은 3월 한 달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봄맞이 자원봉사의 달'로 정하고 계열사 임직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은 전국 1500여개 사회복지시설, 농촌 자매마을 등을 찾아 시설 대청소, 공원과 하천의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경기도 화성 노인요양시설 '소망의 집'을 찾아 이불빨래를 하고 있다. /삼성사회봉사단 제공

갤럭시S6 '패션 도시' 파리서 디자인 공개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갤럭시 S6'의 디자인 우수성을 알리기에 나선다. 장소는 패션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다.

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시즌 호텔에서 글로벌 패션 미디어의 에디터와 셀러브리티 100여명을 초대해 '테이스팅 나잇 위드 갤럭시(Tasting Night with Galaxy)' 행사를 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파리 패션위크 기간에 삼성전자는 영향력 있는 패션업계 관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의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삼성이 발표한 새로운 패션 캠페인의 주제는 '포스 오브 패션(Forces of Fashion)'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패션의 중가운데로 진입시키고,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는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이 제품 디자인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영화배우 재리드 레토와 모델 제시카 스탬, 지지 하디드, 다우첸 크로스, 패션지 편집장 카린 로이트펠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패션업계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의 디자인 혁신을 위해 스와로브스키, 몽블랑, 디젤, 컬러 골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했다. 앞서 2004년에는 디자이너 다이앤 폰 퍼스텐베그(DVF)와 협업을 통해 A680 핸드폰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은 바 있다.

/정…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6 출시에 앞서 셀러브리티와 업계 관계자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모델 지지 하디드, 다우첸 크로스, 칼리 도날슨, 패션지 편집장 카린 로이트펠드, 사진 뒤쪽 영화배우 재리드 레토)

삼성전자 액티브워시 세탁기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는 4월 11일까지 이마트와 함께 삼성 액티브워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편리하게 애벌빨래를 할 수 있는 액티브워시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액티브워시는 이마트 외벽광고, 무빙워크 광고 등과 함께 액티브워시 체험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워터젯과 빌트인 싱크로 편하게 하는 애벌빨래 시연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체험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세탁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세탁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이마트 성수점을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수도권 거점지역을 순회하며 열 예정이다.

/정…기자

한중일 조선업 1위 다툼…순위 '엎치락뒤치락'

우리나라 글로벌 1위 탈환 속 중국 수주부진 지속

글로벌시장에서 1·2·3위를 항상 던 조선업계 강자 한국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추월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흔들리고 있다.

월별 수주실적에서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위를 지키다 올해 1월 일본에 자리를 내준 뒤 2월에 다시 올랐다.

8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CGT(수정환산톤수) 기준 국가별 수주실적은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2월 전세계 발주량 46척, 118만CGT 중 우리나라는 21척, 69만CGT로 58.1%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9척, 39만CGT로 32.7%를 기록했다.

일본은 3척, 9만CGT로 7.2%에 그쳤다.

지난달 일본은 18척, 113만CGT의 수주실적으로 45.1%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에 오른 바 있다.

한국은 17척, 83만CGT로 33.3%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중국은 28척, 39만CGT로 15.6%의 비중을 차지하며 3위에 그쳤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이후 1위 자리를 한국과 일본에 내준 채 2~3위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1~2월 전세계 누계 수주량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시운전 모습 /대우조선 제공

(129척, 368만CGT) 중에서도 한국은 38척, 152만CGT로 41.3% 비중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일본이 21척, 121만CGT로 32.9%를 기록했다.

중국은 47척, 78만CGT에 그치며 21.1%로 3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중국의 부진은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무척 대조적이다.

글로벌 발주량 급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전세계 누계 수주실적은 692척, 1198만CGT로 올해 대비 척수 기준 4배, CGT 기준 3배를 넘는다.

이 기간 중국은 260척, 463만CGT로 점유율 38.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107척, 372만CGT로 31.1%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일본은 142척, 243만CGT로 20.3%에 그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국의 지속적인 수주 부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5개월 동안 중국의 월평균 수주량은 50만CGT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수주 부진은 벌크선 시황악화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초 전세계 수주잔량은 5048척, 1억1176만CGT로 지난달에 비해 99척, 192만 CGT 감소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324척, 4370만CGT로 3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834척, 3238만CGT, 29.0%)과 일본(936척, 1968만CGT, 17.6%)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기준 국가별 인도량은 총 108척 224만CGT 중 한국(24척, 84만CGT, 37.2%), 중국(48척, 82만CGT, 36.5%), 일본(22척, 34만CGT, 15.3%) 순으로 집계됐다.

/서양일기자 ramar@metroseoul.co.kr

대전에 있는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SRS®(안전성강화분리막)을 소개하고 있다. /LG화학 제공

LG화학, 中 시니어사에 배터리 분리막 기술 수출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관련 특허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중국 최대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업인 시니어사(Shenzhen Senior Technology)와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관련 특허에 대한 유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일본의 우베막셀(Ube Maxell)에 이은 두 번째 SRS® 특허 유상 라이선스 계약으로, 배터리 종주국 일본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중인 중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시니어사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건식 분리막 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국 최대의 분리막 전문 기업이다. 이번 LG화학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을 통해 분리막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니어사는 2003년 9월에 설립돼 현재 중국 심천에 본사가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억3000만 위안(약 583억원)으로, LG화학을 비롯해 중국 최상위 배터리 업체 등에 분리막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SRS®(안전성강화분리막)은 2004년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을 코팅해 열적, 기계적 강도를 높여 내부단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LG화학은 이 기술에 대해 2007년 한국을 시작으로, 2010년 미국, 2012년 중국, 2014년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다.

LG화학 관계자는 "SRS®는 그동안 당사가 GM, 르노, 볼보,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지멘스(SIEMENS), AES, SCE 등 글로벌 전력회사들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술"이라며 "세계 유수의 분리막 제조업체들로부터 관련 기술 사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향후 유상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 시장도 면적 기준 작년 8억1400만㎡에서 2020년 17억 5000만㎡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 등의 성장 등에 힘입어 안전성강화분리막 시장 규모는 작년 1억㎡에서 6억㎡으로 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승호기자 fun@

취임 1년 권오준 "철강 본원 경쟁력 회복 목표"

14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작년 3월 포스코의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1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구조조정뿐 아니라 솔루션 마케팅과 신소재 신기술 개발과 수출을 통해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포스코특수강과 포스화인, 베트남 다이아몬드플라자, 대우마산백화점 등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2조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포스코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1위권에 속하지 않거나 철강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핵심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넥스 CEM 리튬추출 기술 개발 상용화 주력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서도 철강 핵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지속했다. 광양제철소에 자동차 강판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파이넥스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수출에도 주력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제철기술인 파이넥스는 원료의 예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자연 상태의 가루 철광석과 유연탄을 곧바로 사용해 쇳물 만드는 혁신 기술이다. 생산 원가를 낮추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기능 신소재 부분에서는 니켈과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염수리튬의 고효율 추출법을 개발해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연 200t 생산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다. 니켈은 융복합 제련 고유기술의 단계별 상업화를 위해 2004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작년 6월에는 파일럿 공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데모플랜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소라기자 ©sound@

금호아시아나, 일본고교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전날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8회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작년 12월부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 일본 각지에서 예선을 통과한 일본 고교생 32명이 참가했다.

심동섭 주일한국문화원장,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가네와카 토시유키 도쿄여자대학 특임교수, 유광열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본선대회는 한국어 스피치, 한국어 촌극(2인 1조), 일본어 에세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특별상 8명, 지도교사상 1명, 총 17명이 본상을 받았다.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7일 열린 8회 금호아시아나배 한국어말하기 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은 7월 본선 입상자들을 초청해 열흘간 국내 주요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는 한국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창환기자

갤 시리즈 가격인하 줄이을 듯

갤S6 출시 앞두고 출고가 인하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5' 현장에서 전격 공개된 후 전세계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시장조성에 나서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이 갤럭시S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갤럭시 S5 광대역LTE-A의 출고가를 89만98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20만200원 털어냈다. 출고가 하락은 전 요금제에 적용돼 의미가 크다.

8일 업계에서는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이전 모델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갤럭시S6는 출고가가 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번 출고가 인하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그 이전 모델인 갤럭시S5(출고가 86만6800원) 간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해 갤럭시S 시리즈의 가격 조정이 줄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출고가 인하 와중에도 보조금 하향 추세는 지속하고 있다.

갤럭시S5

SK텔레콤은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공시보조금(3만원대 요금제 기준)을 20만1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는 61만7600원으로 이전에 비해 8만1200원 인하되는데 그쳤다.

SK텔레콤은 이외에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73만1000원에서 21만원으로, 갤럭시S4(32G)는 52만8000원에서 14만원으로, 갤럭시 라운드는 55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대폭 내렸다.

한편 SK텔레콤에서 갤럭시 노트3의 공시보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기본 구매가는 다른 통신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LG유플러스의 기본 구매가는 63만원이고, SK텔레콤은 그보다 4만원 비싼 67만원이다. 공시보조금이 많이 지급됐을 때는 재고가 모두 소진될 정도로 갤럭시 노트3의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공시보조금 수준으로는 가끔 재고가 풀려도 전의 경우처럼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LG전자가 경상남도 창원공장에서 '창원R&D센터'를 착공했다. '창원R&D센터'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연구시설로는 가장 큰 규모로 총 2000억원의 투자비가 투입돼 2017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LG전자 '창원R&D센터' 모습 공개

2000억 투자…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

LG전자 '창원R&D센터'가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경상남도 창원 소재 LG전자 창원공장 내에 위치해 있다.

LG전자는 총 투자비 2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R&D센터'는 연면적 51810㎡에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연구시설로는 가장 크며 연구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착공으로 1976년부터 39년간 LG전자 가전사업본부의 본부 역할을 해온 창원공장 본관은 '창원R&D센터'로 거듭나며 생활가전 분야 연구개발 핵심기지로 변모하게 된다.

LG전자는 창원공장 중심의 생활가전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시장선도를 위해 연구소 건립, 친환경 사업장 조성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

LG전자는 2011년 세탁기R&D센터, 2013년 시스템에어컨 연구소, 2014년 국내 최대규모 에어컨 전자파 규격시험소 등을 설립했다. 또 태양광 패널, 친환경 LED조명, 에너지 중앙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해 창원공장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장 사장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경남과 창원의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균기자 yes@

LG전자, 21:9 곡면비 모니터 2종 추가 출시 LG전자가 '34인치 곡면 울트라와이드 모니터(34UC87M)', '29인치 곡면 시네뷰 모니터(29UC97)' 등 21:9 화면비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LG전자가 선보인 21:9 화면비 곡면 모니터는 가로 길이가 보통 모니터보다 길지만 곡면 디자인을 적용해 화면 좌우 끝 부분이 사용자의 눈과 가까워져 몰입감이 뛰어나다. 모델이 '29인치 곡면 시네뷰 모니터(왼쪽)', '34인치 곡면 울트라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LG 올 상반기 공채 '스타트'

국내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LG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다음 달 12일 실시하고, 임원면접과 직무역량면접을 거쳐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8월 이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올해 7~8월 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점이 4.5점 만점에 3.0 이상이고, 계열사와 직군에 따라 다른 영어회화시험(오픽 또는 토익스피킹) 등급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등이다.

이번 상반기는 학점이 3.0 이상에 영어회화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SSAT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상반기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4000~500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그룹도 지난 4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20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채용 전형은 서류, LG웨이핏테스트,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인적성검사인 LG웨이핏테스트는 4월18일에 본다.

/정하균기자

"LG유플, 혁신으로 제2 성장해야"

이상철 부회장 "주주가치 더 높일 것"

LG유플러스는 제 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상암사옥에서 열고 총 매출 10조7998억원, 영업이익 5763억원, 당기순이익 2277억원 등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통주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014년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7% 성장한 8조3795억원의 서비스 매출과 전년 대비 6.3% 성장한 576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LTE 가입자가 누적 무선가입자 1127만명의 약 75%에 달하는 질적 성장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2015년은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New Life Creator)로 기존의 밸류 제안을 뛰어넘는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영역에서의 혁신을 통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주주가치도 더욱 높여 명실상부한 탈통신 세계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수용하는 지능형 스마트 비서 서비스와 비디오 핵심 서비스의 리더십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자결제, IDC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LG유플러스는 하현회 LG 사장을 비상근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우명호 세계전기자동차협회 회장과 정하봉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한미숙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정하봉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유선준기자

<맥도날드 대표 아침 메뉴>

에그맥머핀 오늘 36만개 공짜…7억 쏜다

한국맥도날드 "외국기업 배척 풍토 바뀌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이윤 창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측면을 가지며 기업과 공동체의 소통창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은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공동체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알바 꺾기' 논란에 시달려온 한국맥도날드는 9일 오전 전국 360여개 매장에서 맥도날드의 대표 아침 메뉴인 36만여 개를 무료로 증정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편견 없애기에 나섰다. 비용으로 따지면 7억원이 넘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오전 7~10시 내셔널 브렉퍼스트(National Breakfast Day) 행사의 일환으로 매장 당 선착순 약 1000명의 고객에게 2000원 상당의 에그 맥머핀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내셔널 브렉퍼스트데이 행사는 2013년 시작돼 올해로 3년째다. 아시아·중동·남아프리카 등 30여 개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동일 날 개최되는 맥도날드 최대 규모의 아침 캠페인이다.

맥도날드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 계란이 사용된 아침메뉴를 소개할 수 있고 고객들은 건강한 무료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엘리저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점 매장에서 갓 조리한 에그 맥머핀을 나눠주며 고객들과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3회 내셔널 브렉퍼스트데이 행사의 관훈점 모습

무료 아침 캠페인으로 '알바 꺾기' 논란으로 훼손된 맥도날드의 이미지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까?

2013년 8월 아르바이트생들이 결성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조직 결성 이후 세계 최대의 식품 체인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부당고용을 하고 있다'며 매장 점거 등 규탄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맥도날드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적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조기 퇴근 시키는 이른바 '알바 꺾기'를 수시로 했다고 주장하며 손님이 많은 점포들을 선택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매장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맥도날드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수 차례 현장 관리 감독을 실시했으나 위반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세계 최대 식품체인인 맥도날드 시위를 통해 알바노조를 알려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은 전혀 맥도날드 측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업방해와 고객 신변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눈치만 살피며 수수방관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급은 7000~8000원 수준으로 최저 시급 5580원보다 월등히 많다. 전국 맥도날드 매장 매니저의 70%와 본사 직원의 50% 이상이 아르바이트생 출신이다. 주부 아르바이트생도 전체 아르바이트생 1만6000여명의 10%가 넘는 1600여 명이다. 장애인 아르바이생은 170여명이나 근무중이고 시니어 아르바이생도 220여명에 달한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직장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알바노조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 왕따 사례는 역시 세계 최대 맥주제조 회사인 오비맥주의 '한강물 봉이 김선달'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진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비맥주에 느닷없이 예전 한강 물 사용료 12억여원을 고지서도 아닌 공문으로 부과했다. 관련법에 의해 당국 스스로 면제해준 물 값을 여론을 핑계로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받아간 것이다. (본지 3월 2일자 참조)

'발품떼기' 같은 저신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곰 씹어 볼 때다.

/정지은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 베트남 대통령 예방

현지사업 투자 협력안 논의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대통령궁에서 쯔엉떤상(Truong Tan Sang) 대통령을 만나 롯데의 베트남 현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FTA로 인해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호치민에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을 비롯한 롯데의 현지 사업에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롯데는 현재 호치민 시 투티엠지구에 친환경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왼쪽부터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쯔엉떤상 베트남 대통령, 김치현 롯데자산개발 대표 /롯데그룹 제공

스마트시티에는 백화점·쇼핑몰·시네마 등 복합쇼핑몰과 호텔·비스 레지던스·오피스를 포함한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보라기자

롯데마트, 계약서에 갑·을 표현 없앤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사진)가 9일부터 모든 계약서에 갑(甲)·을(乙)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파트너사', '롯데마트' 표기만 사용한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문화를 위해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트너사-롯데마트 간 신(新) 문화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 파트너사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아울러 파트너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롯데마트 소통폰'을 개설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감사·칭찬을 나누는 '사·감·칭(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기)' 운동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접수, 메일 직접 등 기존의 일방향적인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이 번호를 통해 롯데마트 직원이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협력사 직원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한다. 감명깊은 사연의 경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협력사 대표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협력사 직원은 이 번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롯데마트측에 제안·불만·문의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유통가, 이번엔 '배달 전쟁'

배달앱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견한 유통업계가 배달 서비스를 줄이어 론칭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1위 G마켓은 올해 초부터 모바일 전용 배달 코너를 오픈하고 치킨·보쌈·족발·중화요리·분식 등 본인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음식점의 배달음식을 간편하게 주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마켓은 조기 활성화를 위해 'G배달 데이' 행사를 3월 한달 간 4번에 걸쳐 총 6만장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 비용만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G마켓은 당분간 매달 비슷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지영 G마켓 로컬사업팀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음식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배달 주문이 많아지는 주말을 겨냥해 매주 금요일마다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앞으로 금요일은 G마켓 배달 할인받는 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지난해 5월 전국 지역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론칭했다. 쿠폰 구매 후 별도로 전화주문을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구매와 동시에 바로 배달 주문이 접수되도록 서비스도 개편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검증된 배달업체의 상품을 선별해 소개하고 적립금과 기격할인, 무료메뉴 제공과 타임세일 등을 통해 다른 배달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 앱들이 경쟁하는 배달 음식 서비스 시장에 유통업계까지 뛰어들며 배달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업태의 구분과 업체간 상품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업체들은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서비스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배달 서비스도 기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배달앱 시장은 연간 1조원 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우유 생산량 젖소 도축에도 늘어"

우유 생산과잉으로 재고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우유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우유생산량 2013년 동기대비 5.9%나 늘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도 3.5% 많은 56만~56만5000t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하루 평균 생산량은 6040t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9% 늘었다.

업계는 지난해 연말기준 우유 재고가 전년대비 150% 많은 23만2000여t까지 치솟자 젖소 도태·자율 감축 등으로 올해 11만3000t가량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우유 등은 1~3월 젖소 5400마리를 도축, 연간 4만6000t의 우유생산을 줄일 방침이다.

골프웨어 "영 골퍼 잡아라"

골프 대중화…2030 겨냥 제품 출시 봇물

골프 대중화에 따라 젊은 골퍼들을 겨냥한 상품이 봄 시즌 패션 아웃도어 업계의 주력 제품으로 떠올랐다.

올해 첫 봄·여름 시즌을 준비한 K2의 와이드앵글은 세련된 패턴과 무늬, 슬림핏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북유럽 자작나무를 모티브로 한 나무 패턴 감각을 더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출시한 모과 패턴 시리즈 역시 패션을 중시하는 여성 골퍼를 공략하기 위해 슬림한 라인이 강조됐다.

올 봄 시즌부터 골프라인을 선보이는 아웃도어 밀레도 자동차 업체 푸조와 협업해 마니아뿐만 아니라 캐주얼하게 골프를 즐기는 층에게도 두루 적합한 제품을 내놨다.

LF의 닥스 골프도 허리 라인이 강조된 엔드 브레이커나 파스텔톤 색상이 돋보이는 피케 셔츠 등을 이번 시즌 주요 아이템으로 내놓았다. 닥스 골프 측은 필드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입어도 손색 없을 스마트한 골프웨어가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정의 올 봄·여름 시즌 주력 상품인 '헤더 피케 티셔츠'는 면과 기능성 폴리 소재를 사용해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셔츠다. 퍼플, 핑크·화이트 등 트렌디한 디자인이 강조된 제품이다. 세정은 지난해 헤리토리 골프를 론칭하면서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를 콘셉트로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가 골프 대중화를 이끌면서 젊은 골퍼들이 늘고 있다"며 "골프 웨어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에서도 젊은층을 타깃으로 일상 생활에서 입어도 될 정도로 패션성이 강조된 제품을 출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골프웨어 시장은 지난해 2조 8000억원으로, 올해는 3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와이드앵글

셀프 뷰티 뜬다

주머니 사정 고려한 아이템 눈길

불황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용 관리를 하려는 '셀프 뷰티족'이 늘며 이들을 겨냥한 손쉽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뷰티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필립스 '프로케어 이지 스타일러 브러시'는 모발을 브러시 전체에 감아 스타일링을 연출한 후 상단 캡을 돌려 빗살을 넣으면 머리가 엉킴 없이 풀려 웨이브를 완벽하게 유지해준다. 롤 자체에 160℃와 190℃ 두 단계의 열이 분배돼 자신의 모발 타입에 맞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다시마와 28종의 식물 성분을 사용한 '리시리 헤어 컬러트리트먼트'는 젖은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발어 흰머리가 많은 부위부터 발라주면 천연 식물 색소 조합으로 자연스러운 컬러를 낼 수 있다. 기존 샴푸하듯이 머리를 감아주면 되는 '리시리 컬러샴푸'와 함께 사용하면 색상유지는 물론 두피와 모발건강에도 효과적이다.

기존의 크림 타입 염색약보다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품 염색약인 미장센 '쉽고 빠른 거품염색'은 흘러내림 걱정없이 편리하게 셀프 염색이 가능한 염색약이다.

네일 아트를 쉽고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도 대거 출시됐다. 에뛰드하우스의 '에나멜링 젤 네일즈'는 에나멜 코팅과 광택감이 특징이다. 함께 사용하는 '에나멜링 LED 젤 램프'는 36개의 LED가 빛을 전달해 손톱 전체를 빠르고 고르게 굳히며 휴대·보관이 용이한 소형 LED 램프로 제작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숍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집에서 미용을 관리하려는 '셀프 뷰티족'을 타깃으로 다양한 아이템이 늘면서 셀프 뷰티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할랄식품 수출길 '활짝'…2017년 1조4000억 기대

세계 식품시장 20% 차지…화장품도 제품 개발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인 '할랄' 식품 시장 진출에 대한 식품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할랄식품 시장은 6500억 달러(약 712조원) 규모로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할랄식품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이슬람 시장을 겨냥해 할랄 인증을 취득한 식품업체들이 인증 제품 확대 등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연내 제품 추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동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할랄 인증 식품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현재 햇반, 조미김, 김치 등 3개 품목 43개 제품을 할랄 인증을 받아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할랄식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거대시장이어서 꾸준히 할랄 인증 제품을 늘리고 있고, 이번 MOU를 계기로 할랄 인증을 받은 한식 수출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심은 할랄 신라면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김치라면 등으로 할랄 인증 제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심은 2011년 4월부터 부산에 이슬람용 할랄 생산시설을 갖추고 '할랄 신라면'을 선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9개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이슬람중앙회 할랄 인증을 받은 할랄 신라면은 소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콩 단백질을 이용해 스프 맛을 낸 점이 특징이다.

KGC인삼공사는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홍삼 수출이 확대되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한정된 홍삼 시장이 다변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홍삼 불모지인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작년 4월 한국이슬람중앙회로부터 정관장 뿌리삼과 홍삼농축액 등 3개 품목의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아워홈은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주, 중동 등 이슬람 시장이 형성된 해외 모든 지역에 할랄 인증 식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미김과 김치로 할랄 인증을 받았으며 김과 김치에 이어 불고기 떡볶이, 비빔밥, 닭갈비 등 이슬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식의 할랄 인증 방안도 연구 중이다.

정부는 이번 할랄 MOU로 지난해 6억 8000만 달러(약 7500억원)였던 우리나라의 할랄 관련 농식품 수출액이 2017년 12억 3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마켓, 더페이스샵 50% 할인

G마켓은 17일까지 '더페이스샵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일 기간 동안 더페이스샵의 인기상품인 리얼씨드 클렌징오일 촉촉아몬드와 리얼씨드 클렌징오일 산뜻솝베리를 50% 할인된 9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주요 제품인 스밈 광채 보습 크림과 스밈 광채 보습 에센스는 각각 50% 할인된 1만6000원, 스밈 광채 보습 토너, 스밈 광채 보습 에멀젼도 반값인 1만2000원이다. 씨앗 속의 씨앗 피부 속 탄탄 싸는 에센스, 페이스잇 파워퍼펙션 비비도 각각 30% 할인가에 판매하는 등 더페이스샵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카페베네, 김수현 글로벌 모델 발탁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대표 김선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한류스타 배우 김수현을 글로벌 모델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배우 김수현은 향후 1년간 글로벌 전속모델로서 TV 광고, 화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의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새로운 모델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탐앤탐스, 中 베이징에 신규 개점

탐앤탐스(대표 김도균)는 중국 베이징에 왕징 SOHO(왕징 소호) 점을 직영으로 신규 개점했다고 8일 밝혔다.

탐앤탐스의 왕징소호점은 왕징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왕징 소호'에 위치하고 있다. 왕징 소호엔 고급레스토랑과 호텔, 명품거리, 고급 의류 잡화점 등이 입점해 있어 현지인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칭다오본점을 비롯해 충칭과 푸저우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현장에서 가맹 개설에 대한 문의를 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개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탐앤탐스만의 특화된 메뉴를 앞세워 세계 전역에 한국의 커피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표 '유기농 콩농장' 가족 모집

샘표(대표 박진선)는 봄을 맞아 '유기농 콩농장'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올해 10회째로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콩을 심고 재배해 장 담그기까지의 과정을 가족이 함께 경험해보는 생태 체험적 행사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샘표 유기농 콩농장과 서울 충무로의 샘표 본사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파종식, 허수아비 만들기, 된장요리교실, 수확 및 타작하기, 메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29일까지 샘표 아이잠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 60가족을 모집하고 4월3일에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가족당 10만원이다.

봄에도 스키 탄다

곤지암리조트 15일까지 스프링 스키 운영

서브원 곤지암리조트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특별한 주말 나들이를 위한 스프링 스키를 운영한다.

초·중급 용폭 슬로프 코스인 제타2와 휘슬, 하늬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눈썰매장은 14일부터 이틀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곤지암리조트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5시간 동안 스키를 탈 수 있는 미타임패스는 2만원, 장비 풀세트 렌탈은 1만원이다. 또 눈썰매장 반일 이용권(오전·오후·저녁)은 5000원이다.

스프링 스키기간 슬로프 운영시간은 13·14일은 밤 12시까지고 1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황재용기자

세계 호텔 요금 5년째 ↑

호텔스닷컴, 지난해 호텔가격지수 발표

전 세계 호텔 객실 가격이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호텔스닷컴은 지난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지불한 호텔 객실 평균 요금 등을 담은 '2014 호텔가격지수(Hotel Price Index)'를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여행객들이 지불한 호텔 객실 평균 요금은 전년보다 3% 상승했다.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로 급락했던 호텔 객실 가격이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또 전 세계 6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호텔가격지수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북미지역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달러 강세에 힘입어 2013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카리브해지역과 유럽·중동 역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태평양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뚜렷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호주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로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한 스반스트롬(Johan Svanstrom) 호텔스닷컴 사장은 "전 세계 여행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여행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하철 알리미 모여라!

서울메트로, 20일까지 '해피메신저' 모집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2015년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를 20일까지 모집한다.

해피메신저는 지하철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 이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지하철 홍보 아이디어 제안은 물론 기자 취재와 영상 촬영 등을 하게 된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과 서울메트로 공익홍보물 출연, 모니터링 활동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서울메트로는 선발된 해피메신저에게 활동 내역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취재 시에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카드도 발급된다.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이라면(휴학생 제외)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선발 인원은 취재기자(리포터) 8명과 영상기자(VJ) 4명 등 총 12명이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참여 가능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해피메신저는 홍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경력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과 관련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숨 쉬고 싶어요! 지난 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그린피스의 새 기후에너지 캠페인 '콜록콜록 초미세먼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재 그린피스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발전소 증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강강술래, 새봄맞이 증정 이벤트

갈비탕·육개장 30% 할인에 곰탕 2봉 증정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봄 시즌을 맞아 외식이나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덤 증정·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5292)을 통해 늘봄육개장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2만9000원, 늘봄갈비탕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을 2봉 더 준다.

신상품 '늘봄 갈비탕'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건강에 좋은 인삼과 흑삼을 넣어 맑고 진한 갈비탕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늘봄 육개장'은 얼큰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소고기 함량이 10%로 푸짐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다.

신상품 2종 모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전 매장에서는 와인(카르멘 플렌 블루) 1병을 주문하면 결제 시 와인(카르멘 플렌 카베르네소비뇽) 1병을 무료로 증정하는 '1+1 덤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한편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한우세트(한우양념구이560g+한우불고기500g)를 41% 할인된 6만5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로 우려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약 50% 할인된 3만1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나들이에 좋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10봉/4만2000원)와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철길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62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쉐보레 트랙스 · 쌍용 티볼리 · 르노삼성 QM3 · 현대 올뉴투싼

불붙은 소형 SUV 시장 '4파전'

티볼리 판매 열풍에 올뉴 투싼으로 대결…트랙스·QM3 가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단연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다. 지난해부터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르노삼성과 한국GM이 QM3와 '쉐보레 트랙스'를 각각 1만8000대, 1만대씩 팔아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작년 말에는 푸조가 가격대비 연비가 높은 '2008'을 출시해 주목받더니 올 초에는 쌍용차 티볼리가 여세를 몰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올 뉴 투싼'도 다운사이징한 1.7L 소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내놓고 가세해 시장을 달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는 6월 티볼리 디젤 모델 출시와 함께 가솔린 4륜구동 모델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티볼리는 저렴한 가격(자동변속기 기준 1795만원부터)대비 높은 옵션 등의 성능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디젤이 출시되면 인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티볼리의 최저가 모델은 1635만원부터이고, 투싼은 2250만원이다(수동변속기 기준).

티볼리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약 한달 남짓에 누적계약 1만대를 돌파했다. 동급 차종인 트랙스의 지난해 판매량이 1만368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다.

쌍용차 관계자는 "평일 3시간씩 야근과 주말 특근으로 물량 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발적인 반응에 부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는 최근 일본 아이신측에 변속기 공급물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 디젤 모델의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을 내세워 티볼리 돌풍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으로 출시도 앞당겼다.

현대차의 투싼은 엄밀히 말하면 티볼리보다 차체가 훨씬 크지만 티볼리가 소비자에게 먹혀든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1.7L 모델에는 유로6 디젤엔진과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엔진을 꺼주는 ISG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 6개 에어백을 적용했다. 티볼리의 디젤 모델과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1.7L 모델의 고급 트림인 '모던'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LED 방향지시등, 풀오토 에어컨 등이 추가되며 45.72cm(18인치) 휠, 파노라마 선루프, 20.32cm(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옵션으로 분류됐다.

'쉐보레 트랙스'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조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1.4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140마력을 내고, 차의 높이가 1670mm로 경쟁자들보다 높다. 타사 모델들보다 트렁크 높이가 높아 수납공간이 넓고 차체가 높은 SUV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시야확보가 좋다. 가격도 1953만~230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트랙스 디젤도 출시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의 QM3는 동급 최강의 연비를 무기로 내세운다. 디젤 엔진을 달고 L당 연비가 18.5km나 된다. 모기업 프랑스 르노가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마크만 바꾸면 수입차 같은 느낌도 매력이다. 값도 경쟁력을 갖췄다. 2280만~2570만원으로 가격대비 연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입차인 푸조 '2008'은 2000만원대 수입 SUV라는 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당 연비가 17.4km로 상위권에 속한다. 작년 10월 출시 직후 예약 고객이 1000명 몰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만의 물 흐르는 듯 수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최고급 모델 가격을 3150만원에서 3090만원으로 낮추면서 투싼 상위트림 모델을 넘보려는 소비자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혼다코리아도 소형 SUV를 들여오는 것을 검토중이다. 혼다가 수입을 검토중인 HR-V는 혼다의 베스트셀링 SUV인 CR-V보다 작은 엔트리급 모델이다. 소형차 재즈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1.5L 가솔린과 1.6L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임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GM,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 78개사 선정

한국지엠주식회사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제너럴모터스그룹 내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GM은 지난 5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Supplie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현재 거래중인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우수 부품업체 78개사를 선정했으며 이중 국내 부품업체는 28곳이 포함됐다.

조니 살다나(Johnny Saldanha) GM해외사업부문 글로벌 구매 부사장은 시상식에서 한국 부품업체가 거둔 이번 성과는 한국 업체들의 높은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살다나 부사장은 "2008년부터 7년 연속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우수 협력업체가 한국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GM은 지난 5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에서 현재 거래중인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우수업체 78개사를 선정했으며 이중 국내 업체도 28곳이 포함됐다. 메리 바라(Mary Barra) GM CEO가 수상업체들을 호명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한편 GM은 매년 거래중인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가운데 품질, 기술, 납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 우수 협력업체를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로 23회째다.

/김종훈기자

쉐보레 스파크EV 보조금 2200만원

제주도민 대상 구매 접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스파크EV의 구매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도 쉐보레 대리점 4곳에서 구매 신청을 받는다.

스파크EV 판매는 제주도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과 연계돼 있다. 이 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2200만원의 혜택을 받아 1790만원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 최대 600만원의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받는다.

쉐보레 스파크EV는 GM의 최신 친환경차 개발 기술과 한국지엠의 경차 개발 노하우가 집약돼 개발됐다. 지난 2013년 국내 전기차 민간보급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출시된 스파크EV는 LG화학의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장착, 업계 최고 수준의 기존 에너지 효율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2015년형 모델로 국내 전기차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파크EV는 국내 출시 이후 탁월한 성능(최대출력143ps, 최대 토크 48.2 kg.m)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에 기반한 높은 경제성, 편리한 콤보 타입 급속충전방식, 8년/16만km의 보증 정책과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으로 전기차 고객들을 사로잡아 왔다.

스파크EV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4년 신차안전도 평가에서 전기차 최초로 종합 평가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스파크EV는 정면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종합 1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전기배터리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는 차체 구조를 적용해 거둔 결과이다.

/김종훈기자

데뷔 18년동안 무스캔들 비법 노력의 결과

'가족끼리 왜 이래' 끝낸

김현주

배우 김현주가 데뷔 18년 동안 스캔들이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단히 노력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최근 종영된 KBS2 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에서도 결혼 적령기를 넘긴 뒤처졌던 저감정으로 분했다.

"딱히 연애할 기회가 없었어요. 소개팅도 거의 안 했죠. 싫어서 뭐하는 건가 싶어요. 자연스럽게 만나 알아가다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 같아요. 때로는 정말 외로워서 결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아요. 쉽프디스인 거 같은데 제가 여자로서 매력 없나 봐요. (웃음)"

공개 연애 중인 스타들의 용기는 부러워했다.

"제가 좋아하는 정도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항상 달랐던 거 같아요. 사랑을 할 때도 이성적이에요. 최선을 다해 올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겐 차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두려움 없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공개 연애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럽더라고요.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무조건 숨겨야 하는 일이었고 그런 자세가 익숙하죠.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도 내색한 적이 없었어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당시 18년 동안 자신을 응원한 팬클럽을 언급했다.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초창기 팬들은 사회인이 돼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팬과 인생을 함께 하는 느낌이라 뭔하기도 해요. 제가 잘 아들어왔나 봐요. (웃음) 팬 카페가 유일한 소통 창구예요. 인터넷 기사엔 안 예쁜 사진이 걸릴 수도 있고 댓글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팬 카페에 가면 예쁜 거 위주로 올리니까 저는 그걸 봐요. 팬 카페를 매일 들어가서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 절친에게도 연애 내색 안해
> 한때 슬럼프…꽃꽂이 배워
> 좀 노는 역할 하고 싶어요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2007)를 통해 슬럼프를 극복했다. 그는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당시 상황을 추억했다.

"제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거 같아서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심리 치료에 좋다고 해서 꽃꽂이도 배웠죠. 은퇴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데뷔 때부터 정체성을 또른 게 얼만 됐죠.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불만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졌어요. '유리구두'(2002) 이후 쉬기도 했죠. 근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내가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어떤 배우인지, 대중이 저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젠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연기에도 편안하게 녹아날 거 같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를 지운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증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얼마 전 '가족끼리 왜이래' 팀과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20대 배우들과 사진을 찍으니까 스태프들이 '아직 괜찮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럼 (작품에) 나를 써요'라고 말했어요. 20대 남자 배우와 연기하는 게 의외로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웃음) 올해 작품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과 밝은 분위기가 나는 걸로요. 어떻게 변신할 지는 모르겠어요. 착한 캐릭터만 선호하지 않거든요. 일탈을 꿈꾸지만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단정한가 봐요. 배우로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좀 놀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용준기자 wosh(?)@metroseoul.co.kr

사진/매스컴스미디어 제공 디자인/최송이

star bag

장동건·김하늘과 한솥밥

배우 황신혜가 장동건·김하늘 등이 소속돼 있는 SM C&C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SM C&C는 지난 6일 "황신혜와 전속계약을 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신혜는 최근 스토리온 '렛미인 4' MC로 활약하고 있다.

중국 TV 출연 '인기 만점'

배우 박신혜가 지난 5일 저녁 중국 후난위성TV의 정월대보름 특집 방송 '원소희락회'에 출연했다. 박신혜는 이날 방송에서 중국 인기 배우 휘샤오밍과 함께 즉석 상황극과 듀엣곡 무대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박신혜는 '드림 오브 엔젤 아시아투어'와 해외 화보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PD대상 출연자상

걸그룹 걸스데이가 제27회 한국 PD대상 가수 부문 출연자상을 수상한다. 한국 PD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 PD대상은 방송의제를 통해 자유언론과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 PD와 방송인에게 주는 상이다. 걸스데이는 "PD님들이 인정해 주시는 상이라 더욱 값지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은손'으로 스크린 컴백

배우 한고은이 오는 4월 개봉을 확정한 영화 '검은손'으로 7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검은손'은 의문의 사고로 인해 손 접합수술을 하게 된 유경과 그의 권한이시 수술 집도의 정우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영화다. 한고은이 유경 역을 맡았으며 상대 역인 정우는 김성수가 연기했다.

인간의 감성 가진 로봇 통해 현실 비판

'디스트릭트9'의 블롬캠프 감독 신작… 차별·폭력 주제 반복하는 뚝심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채피

데뷔작부터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은 창작자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다. 하지만 그 다음 작품부터 데뷔작과의 비교가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닐 블롬캠프 감독에게는 바로 '디스트릭트9'이 그런 영화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인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독특한 설정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냈다. '디스트릭트9'은 기존 SF영화와 거리가 먼 하드보일드한 감성 속에 차별과 폭력이라는 테마를 담아 신선함을 안겼다. 그러나 2013년에 선보인 두 번째 장편 '엘리시움'은 '디스트릭트9'을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칭하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날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익숙한 설정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피'는 닐 블롬캠프 감독이 '엘리시움'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이다. 영화는 인간과 똑같은 지능과 감성을 갖게 된 로봇 채피의 이야기를 그린다. 경찰 로봇 설계자인 디온(데브 파텔)의 손에서 태어난 채피는 인간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배워 나간다. 그런 채피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갱들과 디온의 갈등, 그리고 디온에 대한 반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빈센트(휴 잭맨)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채피'에서 닐 블롬캠프 감독은 자기복제와 변주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다루기보다 차별과 폭력이라는 테마에 더욱 관심을 두는 점이 그렇다. 채피는 단지 로봇의 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는 점에서 '디스트릭트9'의 외계인 프런과 닮았다. 채피가 읽는 동화책이 다인 양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검은 양의 이야기라는 점도 이런 주제를 잘 보여준다.

전작들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러티브의 한계는 '채피'에서도 여전하다. 과학적인 설정의 개연성이 부족한 점이 눈에 밟힌다. 힙합 그룹 다 앤트워르트의 래퍼 닌자와 요란디가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출연해 날 것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한다. 그럼에도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평면적인 점은 아쉽다.

그러나 '채피'가 흥미로워지는 것은 예상 밖의 이야기 전개로 펼쳐지는 후반부다. 자신의 주제와 관심사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겠다는 닐 블롬캠프 감독의 고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채피'에서 닐 블롬캠프 감독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 순수한 뚝심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국내 개봉 버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위해 일부 장면들이 블러 처리됐다. 3월 12일 개봉.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규리, 임권택의 102번째 '뮤즈'

'화장'으로 환상적인 캐릭터 연기

배우 김규리(사진)가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으로 지금껏 가장 돋보이는 매력을 발산한다.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와 드라마 '학교'로 얼굴을 알린 김규리는 그동안 세련된 외모와 개성 있는 연기 스타일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존재감을 일궜다. 이후 소재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영역을 넓혀왔다.

임권택 감독과는 '하류인생'에서 함께 작업한 바 있다. 임권택 감독은 "'김규리라는 배우가 이토록 예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껏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규리는 '화장'에서 추은주 역을 맡았다. 주인공 오상무(안성기)의 열정을 일깨우는 여인으로 젊음 그 자체인 인물이다.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흔들리는 오상무에게 고뇌와 번민을 안겼던 인물인 만큼 죽음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김규리는 "추은주는 예쁠 수밖에 없는 여자다. 여유 다워야 하고 환상 속에 아련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임권택 감독님께서 추은주를 더욱 아름답게 그려낸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 등이 출연한다.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오는 4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아이돌 첫 체조경기장서 5회 연속 무대

그룹 엑소(EXO)가 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엑소 플래닛 #2 – 더 엑솔루션(The EXO'luXion)'의 포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번 공연은 7~8일과 오는 13~15일 총 5일 동안 치러진다. 아이돌 그룹이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5회 진행하는 것은 엑소가 처음이다.

엑소는 8일 오후 이틀 차 공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 단독 공연을 열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공연에서 한층 발전된 엑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찬열은 "팬들 앞에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힘든 일들이 있었다"며 "팬들을 바라보며 앙코르곡으로 '약속'을 부르던 중 팬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팬들의 '고마워, 고마워' 함성에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다.

'약속'은 멤버 첸이 작사, 레이가 작곡에 참여한 R&B 발라드 곡으로 새 앨범에 실릴 예정이나, 엑소는 이번 콘서트에서 '약속'을 비롯해 '엘 도라도(El Dorado)', '엑소더스(Exodus)',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 등 각종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백현은 "팬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팬들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과 약속 등을 노래에 담았다. 그래서 제목이 '약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엔 회당 1만4000명, 총 7만여 관객이 엑소의 공연을 찾는다.

/김민지기자 language@

'킹스맨' 400만 돌파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가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흥행의 새 역사를 썼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킹스맨'은 개봉 26일째인 8일 오전 8시 4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404만4335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킹스맨'은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최초로 4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8일 현재까지 개봉한 2015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통틀어 전체 박스오피스 1위 기록도 지지했다.

/장병호기자

롯데, 파라마운트와 손잡다

국내 배급 담당…첫 작품은 '미션 임파서블5'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인 파라마운트 픽쳐스의 작품의 국내 배급을 맡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파라마운트의 해외 극장 마케팅 배급 부문 공동 사장인 마크 비안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서 개봉할 파라마운트의 모든 작품들에 대한 뛰어난 마케팅 배급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차원천 대표는 "한국 관객들에게 파라마운트의 뛰어난 프랜차이즈 라인업을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파라마운트 국내 배급 첫 작품은 톰 크루즈 주연의 인기 프랜차이즈 '미션 임파서블'의 신작이다. 오는 7월 30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류현진 라이브 피칭도 "굿"

13일 샌디에이고 시범경기 등판

류현진(28 LA 다저스·사진)이 타자를 세워 두고 실전에 가깝게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 스타디움에서 진행한 라이브 피칭에서 마이너리그 타자인 트래비스 위더스픈, 제러미 헤이즐베이커를 상대로 2이닝을 던졌다.

잭 그레인키에 이어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라이브 피칭에 나선 류현진은 37개의 공을 던지고 안타성 타구 2개와 볼넷 하나를 허용했다.

첫 이닝에서 교대로 나선 위더스픈, 헤이즐베이커를 상대로 각각 5개, 6개, 4개의 공을 던져 모두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닝에서는 유격수 키를 넘어 좌중간에 떨어질 만한 타구에 이어 쭉쭉 뻗어나가 왼쪽 펜스 워닝트랙에 떨어지는 장타를 내줬다.

투구 수가 늘어나면서 공이 낮게 제구됐고, 체인지업도 예리하게 뒤면서 헛방망이질을 유도했다. 뒤에서 투구를 지켜보던 매팅리 감독도 류현진의 직구가 스트라이크존 낮은 코스에 강력하게 꽂히자 "굿(Good)"을 몇 차례 외쳤다.

라이브 피칭을 무난하게 마친 류현진은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13일 샌디에이고의 시범경기에 처음 선발 등판한다.

허니컷 투수코치는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본 뒤 "직구는 낮게 제구됐고, 특히 체인지업도 좋았다"며 "류현진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공을 던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두 번째 이닝에서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도록 했다. 아직 훈련 기간"이라며 "그래도 전체적으로 류현진이 원하는 대로 공을 던졌다"고 호평했다.

류현진 역시 "두 번째 이닝에서 셋포지션을 취하면서 투구 밸런스가 흐트러진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었는데 몸 상태는 괜찮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박인비가 8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세라퐁 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날 4라운드 5번홀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박, 나흘 노보기로 LPGA 정상… 한국선수 5개 대회 연속 '우승 파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코리안 골퍼 들이 5개 대회 연속 우승컵을 싹쓸이하며 돌풍을 이어갔다.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8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세라퐁 코스(파72 6600야드)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정상에 올랐다. 시즌 첫 우승으로 4개월 간의 침묵을 깼다.

박인비의 우승으로 한국계 선수들은 LPGA 투어 개막전 코츠 골프 챔피언십의 최나연, 두 번째 대회 바하마 LPGA 클래식의 김세영, 호주여자오픈 리디아 고에 이어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혼다 타일랜드의 양희영까지 5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펼쳤다.

나흘 동안 보기를 기록하지 않은 박인비의 완벽한 우승이었다.

2위 리디아 고에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출발한 박인비는 6번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리디아 고가 2개의 버디를 낚아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하지만 박인비는 7번홀(파3)에서 4라운드 첫 버디를 잡고 단독 선두로 다시 치고 나갔다. 이어 11번홀(파4)에서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리디아 고와의 격차를 2타로 벌렸다.

박인비의 침착한 플레이에 오히려 리디아 고는 12번홀과 13번홀에서 잇따라 보기를 적어내 무릎을 꿇었다.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한 박인비는 LPGA 투어 통산 13승을 기록하며 우승 상금 21만 달러(약 2억 3000만원)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 이후 4개월 만의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2009년 신지애에 이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두 번째 한국인 챔피언이 됐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는 13언더파 275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슈퍼루키 대결로 관심을 모은 김효주는 이날 5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8위에 올라 톱10에 진입했다.

유소연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채병관기자 mk.m@metroseoul.co.kr

전북·포항 가볍게 1승

인천 김도혁 K리그 클래식 1호골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전북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포항 스틸러스가 수원 삼성을 꺾고 통쾌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포항은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더 손준호의 결승골에 힘입어 수원을 1-0으로 제압했다.

1970년생 동갑내기인 노상래 전남 드래곤즈 감독과 조성환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의 프로 감독 데뷔전이 펼쳐진 광양전용구장에서는 양 팀이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제주가 후반 6분 정다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34분 전남의 스테보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날 열린 3경기에서는 무려 7골이 터지면서 화력쇼가 펼쳐졌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성남FC를 불러들여 2-0으로 제압했다. 간판 공격수 이동국이 오른쪽 허벅지 근육 통증으로 결장했지만, 새롭게 영입한 에두가 전반 35분 페널티킥 결승골에 이어 후반 32분 쐐기골까지 넣었다.

8일 열린 2015프로축구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후반 결승골을 넣은 손준호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광주FC의 경기는 난타전 끝에 2-2 무승부로 끝났다. 부산 아이파크는 웨슬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올 시즌 승격한 대전 시티즌을 1-0으로 꺾었다.

올해 K리그 클래식 1호골은 인천-광주전에서 전반 13분 인천 김도혁이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박병호 투런·만루포 2방 화력쇼!

프로야구 3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한 박병호(29 넥센 히어로즈·사진)가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만루홈런을 포함해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쾌조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박병호는 8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1회말 첫 타석에서 케이티 선발 앤디 시스코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렸다.

이어 5회말 무사 만루 찬스에서 케이티의 두 번째 투수 엄상백과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시속 142km짜리 직구에 힘차게 배트를 휘둘러 중견수 뒤쪽 전광판 하단을 직접 맞추는 초대형 아치를 그렸다.

◆KIA 선발 스탄슨 4이닝 노히트

김기태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KIA 타이거즈는 연습경기를 포함한 11경기 만에야 새해 첫 승리를 맛봤다.

KIA는 이날 마산구장에서 홈팀 NC 다이노스를 4-0으로 제압했다. KIA 승리의 원동력은 단 2안타만 내준 철벽같은 마운드였다.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뛴 오른손 정통파 투수 조쉬 스탄슨은 이날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허용하고 NC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시속 148km까지 찍힌 빠른 볼을 앞세워 삼진도 6개나 빼앗았다.

◆롯데 SK 상대 홈런 4방 펑펑

삼성 라이온스는 포항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9-6으로 돌려세우고 전날 패배(4-9)를 설욕했다. 선발 지우찬이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4탈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의 디딤돌을 놓았다. 이승엽은 2회 선두타자로 나와 두산 선발 잠쎈존을 상대로 우월 솔로 결승포를 날렸다.

롯데 자이언츠는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홈런포 4방을 터뜨리며 9-1로 역전승했다. 0-1로 뒤진 3회말에 짐 아두치(2점), 손아섭(1점), 박종윤(2점)의 홈런포로 5점을 뽑아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고 7-1로 앞선 8회에는 하준호가 승리를 확인하는 2점포를 쏘아올렸다. /김민준기자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새 출발

명지병원, 서남대와 협력병원 협약 체결

서남대학교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이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새 출발했다.

명지병원(원장 김세철)은 지난 2일 서남대에서 서남대 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달 서남대 이사회가 명지의료재단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교육과 임상실습 ▲임상교원의 임용과 처우 ▲연구진료 ▲전공의 교육과 취업 알선 ▲학생복지 등에 대한 협력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서남대 의대 임상 교육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이른 시일 내로 의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일 서남대 의대 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은 명지병원을 방문, 병원과 임상실습 시설 등을 둘러보고 향후 진행될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명지병원은 2015학년도 1학기를 맞아 신임 교수요원 25명을 임용했으며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장을 역임하며 '간염 치료의 교과서'로 불린 이효석 교수를 전격 영입했다.

/황재용기자

'로봇수술 메카' 한림대의료원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Xi 2대 도입

한림대학교 의료원(원장 이혜란)이 로봇수술의 메카로 거듭난다.

한림대의료원은 이달 들어 최신형 로봇수술기인 다빈치Xi 2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기기는 미국 로봇수술기 전문 제작업체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의 최신형 모델. 경기도 안양시의 한림대 성심병원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 각각 설치됐다. 또 기존에 강남성심병원에서 운영되던 로봇수술기 다빈치S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의료원은 다빈치Xi를 도입한 국내 3번째 병원으로 서울·경기·강원 등 모두 3대의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보유하게 됐다. 또 다빈치Xi가 기존 모델인 다빈치 Si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돼 최소 절개수술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수술을 할 수 있어 의료진의 기대도 높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2대의 최신형 로봇수술기를 도입했다. 환자들에게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36개 병원에서 로봇수술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야외활동 많은 봄, 무릎관절 주의보

무릎관절증·반월상연골판 파열 등 조심해야

겨울 동안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과 들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봄철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은 무릎관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무릎관절증 진료 인원을 보면 전체 환자 중 3월에 14.6%가 발생하는 등 봄철이 되면서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량이 적어 근력과 유연성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깅, 등산 등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는 무릎관절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질환이 악화된다. 무릎관절증이 의심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등을 이용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봄에는 반월상연골판 파열도 조심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도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등산이나 마라톤,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되며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힘 없이 무릎이 꺾이는 증상이 있다면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의심해야 한다.

손경모 웰튼병원 스포츠관절센터 소장은 "봄철에는 수영이나 산책 등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한 후 달리기나 등산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운동 중 발생한 관절 손상을 방치하면 다양한 관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사노피, '세계 여성의 날' 사내 행사 개최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코리아(대표 배경은)가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지난 6일 임직원들과 함께 성별이해지능(Gender Intelligence) 함양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회사에서 팀장님, 공장에서는 과장님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성별이해지능에 대한 강의와 함께 임직원들이 이성 동료와 일하며 느꼈던 어려움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 임직원들은 토의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소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배경은 사노피코리아 사장은 "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해 기업 내에서 다양성이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는 다양성 존중을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성별 균형(Gender balance)을 다양성 존중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매년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실·팀장급 전보 ▲스포츠산업실장 유의동 ▲신규기획팀장 여상철

■창원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부장 권민교 ▲경영지원부장 이광준 ▲생활체육부장 최경원 ▲환경사업부장 최경덕 ▲감사실장 이경우 ▲기획예산팀장 조엽락 ▲대외협력팀장 허성욱 ▲경리팀장 최원수 ▲시설안전팀장 구태욱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상철 ▲서부스포츠센터팀장 윤종길 ▲창원스포츠파크팀장 박진호 ▲교통관리팀장 전병석 ▲경사환경관리팀장 김성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팀장 곽종선 ▲진해국민체육센터팀장 남진옥 ▲정보지원팀장 김옥호 ▲회원유원시설팀장 류성열

■제천시
5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동상 ▲감사법무담당관실 하남철 ▲자치행정과 염세진 ▲여성가족과 이동량 ▲교통과 백남식 ▲관광과 고광호 ▲환경사업소 조동호 ▲유통축산과 유병복 ▲건강관리과 윤용권 ▲안전총괄과 김현복 ◇6급 승진 ▲자치행정과 이재유 ▲회계과 오운경 ▲민원지적과 한정수 ▲교통과 한기관 ▲사회복지과 김경미 ▲시립도서관 이상현 ▲농업정책과 제천 ◇6급 전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 용창건 ▲유두동 팀장요원 강신유 ▲팀장요원 이재용 ▲교동 팀장요원 김승식 ▲청풍면 팀장요원 전경길 ▲사회복지과 윤은희 ▲문화예술과 한권석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최우성 ◇출판국 ▲한겨레21부 편집장 안수찬

■한국대학교
▲교학부총장 서규환 ▲대외부총장 이상원 ▲대학원장 최승복 ▲물류전문대학원장 박유화 ▲IT공과대학장 이천 ▲경상대학장 김진환 ▲경영대학장 손동원 ▲문과대학장 조병준 ▲생활과학대학장 최은옥 ▲기획처장 박승욱 ▲대외협력처장 임성권 ▲국제처장 노은주 ▲교무처장 박동희 ▲입학처장 전범호 ▲학생지원처장 이재우 ▲정보통신처장 유창휴 ▲산학협력단장 전한용 ▲정석학술정보관장 정재훈

■목원대
▲관리처장 김영배 ▲발전협력실장 겸 생활관장 임만수 ▲박물관 역사자료실장 겸 국제교육원 과장 이광구

부고

▲정도승씨 별세, 임동훈(한국가스공사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6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62-231-8402

▲여차분씨 별세, 이연철(전 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 부국관 회장)씨 모친상 = 8일 오전 9시 55분 경북 구미참례식장 제원 202호, 발인 10일 오전 9시 054-443-5445

▲류승자씨 별세, 김석재(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씨 모친상 = 8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청주시 가덕공원묘지 02-2072-2010

▲장상진(전 전주 부시장)씨 별세 = 8일 오전 0시 30분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11시 063-274-4300

사기범죄 5년새 17% 늘었다

경찰 '3대 악성사기' 단속 집중 등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사기범죄가 꾸준히 늘어나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경찰청은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해 23만8643건으로 5년 사이 17.1%(3만484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 추세로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5078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전화금융·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이 구성된다. 또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마련해 민원 상담부터 조사, 추적·검거까지 맡아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주한 사기범이나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는 악성 사기범을 붙잡기 위한 별도 추적팀도 꾸려진다. 더욱이 경찰은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수사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캐내고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서부터 직접 상담해 수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기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 이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사기범죄 검거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에게 특별승진을 보장한 파격적인 포상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연합뉴스

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이적성 감정의뢰

늦어도 13일 검찰 송치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총 22점을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와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등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분석하는 중이다.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도서들이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기다리던 봄날 8일 산수유 꽃봉오리 피어오르는 서울 청계천을 찾은 어린이들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 /연합뉴스

복지부,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대

정부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전국 14개 시도와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97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또 이번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시설을 총 2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000원)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illegible]기자

책과 담쌓는 대학생

작년 재학생 1명당 7.8권 대출

국내 대학생들이 독서에 게으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8일 '2014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도서관 416곳(4년제대 278개, 전문대학 138개)의 재학생 평균 대출 건수는 7.8권이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255만명이 도서 1980만4000권을 빌렸다.

또 4년제 대학 도서관의 1명당 대출 도서는 9.0권이고 전문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2.2권이다. 특히 대학생 평균 대출 건수는 2012년 9.6권, 2013년 8.7권으로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도 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년제대 재학생 가운데 도서관에서 1차례 이상 책의 대출을 한 학생은 57.6%이며 전문대 재학생은 29.7%에 그쳤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의 소장도서 규모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대와 경북대 등 재학생 2만명 이상의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도서는 218만3000권으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의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지속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국립생태원, '환경부 지정 위해 우려종' 책자 배포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큰 외래생물 24종의 정보를 담은 '환경부 지정 위해 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전국 주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환경부는 2013년 11월 24종을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위해 우려 외래생물을 100종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illegible]기자

중소기업연수원 뿌리기술 연수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뿌리기술 직무향상' 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1983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원한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은 100만명 이상의 중소기업인이 다녀간 국내 최대 중소기업전문 연수원이다.

이번 뿌리기술 직무향상 프로그램은 뿌리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뿌리산업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기술 등이 있다.

실습 중심의 이 연수 프로그램은 3박 4일 또는 4박 5일간 진행된다. 연수과정은 '알기쉬운 금속기술 종합(재료, 가공, 도금)', 프레스가공설계 기술 및 대피기술' 등 22개 공개집합연수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교육수요를 반영해 스테인리스강의 재료선정기술 및 열처리실무, 미세조직분석을 위한 광학현미경 조직검사 등 2개의 공개집합연수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밖에 34개의 온라인 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각 과정별 연수기간과 비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정진수 중소기업연수원장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금형, 주조, 용접 등의 뿌리기술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중소기업연수원은 실습 위주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통해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원기자 unique@